



### 무명은 도 이루는 바탕 번뇌는 깨달음 여는 근본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부처는 본래 나지 않아 오고 감이 없고 법(法)은 본래 없어지지 않아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그 모습은 텅 비어 보이지 않지만 묘용(妙用)이 자재(自在)하여 찾고 부르는 곳에 현신(顯身)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 다.

무명(無明) 속에 걸림 없는 지혜를 벗어낸 이는 곳곳에서 부처를 이루어 낼 것이요 나고 죽을 속에서 무생(無生)의 눈을 뜬 이는 생멸(生滅)없는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대입과 투쟁 속에 무쟁삼매(無爭三昧)를 이룬 이는 화해(和解)를 빚어내어 상생(相生)의 길을 열 것이며 탐욕 속에 들어 있는 이타(利他)의 덕성(德性)을 깨달 은 이는

평화와 안락(安樂)을 베풀어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며 어리석어 죄업(罪業)을 지은 사람은 뉘우침을 통해 회심(回心)의 눈을 열어 성위(聖位)에 오르게 하였으니

무명(無明)은 도(道)를 이루는 바탕이요, 삼독번뇌(三毒煩惱)는 깨달음을 여는 근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법신(法身)의 묘용(妙用)이요 나고 죽음이 없는 진리의 광명입니다.

심외무법(心外無法)이요 만목청산(滿目靑山)이 아니라 마음 밖에 따로 법이 없으니 눈 앞에는 청산이 가득하구나.

### 부처님 나투시어 광명 영원하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부처님의 본래 서원 중생들을 교화하여 똑같은 깨달음에 들게 하려 하십니다. 부처님께 일체를 바치고, 온전히 공양 올리니 법신 생명 환희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네. 거룩한 이 오신 찬란한 오월이여, 합장하는 손끝마다 하얀 연꽃 피어나 니 아, 당신은 이미 대자유인 더 찾아야 할 자유는 없어요.

춘풍화수지(春風花繡地) 온권월만천(圓擘月滿天) 응화삼천년(應化三千年) 묘광상불매(妙光常不昧)

불바람 불어와 꽃이 온 땅을 수놓고 구름 건너 달빛이 하늘에 가득하구나. 부처님 나투시어 삼천 년에 묘법의 광명은 영원하다.

### 오늘 하루라도 광명을 내 보자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은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光明)은 어두운 이에게 필요하고 생명은 존중받을 때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물질, 사상, 종교, 문화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국 인간의 참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인간이 불행해지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상실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대단히 어려서입니다.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생명의 근원인 소중한 인류의 자산을 마구 파헤쳐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멸망(滅亡)의 길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유한하여 아무리 채워도 만족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평온과 안정만이 영원한 평화와 결핍 없는 대자유(大自由)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복잡하고 좁은 것은 내가 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나아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것도 또한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결과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만사는 각자 스스로의 행위 영역(行爲領域)안에 귀속(歸屬)된 것일 뿐 결코 남의 탓이 아닙니다.

식(識)이 맑으면 불성(佛性)이 깃들고 영혼이 깨끗하면 신성(神性)이 밝아집니다.

지나친 욕망으로 번뇌(煩惱)가 혼만(混濁)하면 불성과 신성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마성(魔性)과 사악(邪惡)이 치성(熾盛)하여 갈등을 유발하고 불화와 고통을 초래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처의 흥을 내고 부처에게 복을 빌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처가 되어 광명을 창조해 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우고(空) 버리면(捨) 심성(心性)이 고요하고 지혜가 열려 그곳에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이 광명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세상의 주인(主)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광명과 해안의 등불 밝히자

도흔 직각종 종인



오늘은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일체중생들의 고통을 애민하게 생각하고 중생들의 마음 속에 자등명과 법등명을 밝혀 주시기 위하여 석가 화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진언행자와 불자로서는 다함께 봉축하게 됨을 무한한 광명으로 생각합니다.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 각자 자기의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으로 어두워진 미혹을 제거하고, 자비용의 광명을 밝혀서 불생불멸의 진리를 체득하며, 선악인과응보의 이치를 깨달아서 능히 사악취선 함으로써 고통 여의고 낙을 얻어 살아가 수 있는 지혜광명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과 삼계유도 사생들이 다 같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고 선악인과응보의 이치를 깨달아서 능히 불착불행할 수 있는 해안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진언행자와 불자로서는 항상 광명의 등불과 해안의 등불을 밝혀서 물심양면으로 되어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여 이 땅을 불국경으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진실한 부처님의 법이며 진각성존의 무진서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문명이 크게 발달되어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심양면으로 되어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물질 과학문명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이 지구상에서 너무나 큰 위력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이 시급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종락)

모든 진언행자와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되새겨서 자신이 먼저 참회하고 실천하여 자성에 법신을 확립하고 인과를 내증하여 이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탐진치에 물든 거지 나를 참회로 씻어 버리고 참된 자기를 바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자성에 본래의 청정성을 찾아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가정과 사회가 화목하며 모든 중생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육대 법신과 일체 유정들이 모두 나의 생명체와 일체함을 자각하여 공존과 공영의 삶이 이룩되도록 바로 보고, 바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빛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참회와 나눔의 등불, 용서의 등불, 상호 이해증진과 평화의 등불, 지혜의 등불, 대서원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참되게 봉축하는 불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좋은세상 눈앞에 오리로다

죽산 스님 대한불교 관음종 종정



불탄 보은 인천천(佛誕報恩天譴) 건곤암색 일시고(乾坤暗色一時斃) 인인각지 진등화(人人各持眞燈火) 만상 무비 미묘불(萬象無非微妙佛) 여래기심정정현(如來既心淸淨現) 막교심타난야마(莫教心他亂如麻) 청설의차어수행(聽說依此如修行) 천당지재어일천(天堂只在余目前)

부처님이 오시니 하늘과 사람이 찬양하고, 온 누리에 어둠이 일시에 밝아지네

사람들 각각 스스로 등을 밝히니 삼라만상 모두가 미묘법이로다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어레가 절로 오시거늘

마음을 삼가다처럼 어지럽게 하지 말라 이말 듣고 이대로만 수행해 나갈지면 좋은 세상 눈앞에 오리로다.

### 뿌리가 하나이니 서로 사랑하라

효강 총지종 종령



(전락) 이 성스럽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화신으로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기원하는 무차대비의 원력이었습니다.

나의 남이 따로 없고, 천지와 더불어 우리 모두 하나의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과 분노가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종락)

우리는 연기(緣起)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자비심과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남을 돕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미물이라도 자비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언젠가는 은혜를 갚기 마련입니다.

동생동사(同生同死), 동고동락(同苦同樂)의 대진리를 하루 빨리 깨달아서 모두가 시기와 질투, 아집과 집착의 굴레를 버리고, 손을 맞잡고 서로 도우며 힘차게 정진합시다.

법어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천여 명의 죽음을 배움하며 쓴 마지막 순간들의 기록!

결혼을 두 달 앞두고 급성 위암 판정을 받아 약혼자와 함께 침모마을로 온 스물여섯 살 아가씨의 눈물겹고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군인의 아내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모두 박사로 키웠지만 어느 날 암 선고 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식들을 남겨둔 채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 물결 낚이 없어 기구하게도 기록과 보기에 불허해야 하는 한 스님의 이야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비로소 평화롭게 떠나는 한 여인의 애절한 이야기 등 그들에게는 한순간이라도 아쉽고 안타까웠을 순간순간들이 책의 페이지 페이지마다 그려지고 있다. 이 책은 실제 에피소드로 그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며 생의 마지막 기록이자 우리들이 맞이할 미래의 시주에이션이다.

### 이승과 저승의 간이역 정토마을 바꾸니 능행스님의 이별과 만남 이야기!

능행스님이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웠던 2년 전 하나 둘 메모해둔 원고가 이 책의 바탕이 됐다. 그간의 활동을 일기체 형식으로 적어 예가 생생하고, 그런 만큼 설득력도 크다. - 중앙일보 능행스님은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죽음이 딱히 질질 끌려가기도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담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죽음일까 하고 묻는다. - 동아일보

49재 범보유으로 좋습니다!

###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능행 지음 | 신국판 | 율컬러 | 276쪽 | 값 9,500원

www.dosolbooks.com Tel. 02.335.5755



### 불편해도 좀 참아 보라 갖고 싶어도 좀 기다려 보라 그 속에 존재의 깊은 풍요가 있다

###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법상 지음 | 신국판 | 율컬러 | 280쪽 | 값 9,500원

부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 부자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부(富)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단순히 소유가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법을 알려준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 이웃과 직원들에게 나눠 줄 이는 부자, 돈과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부자, 기도와 명상으로 깨어 있는 부자, 오직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부자, 그런 부자로 이 순간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www.dosolbooks.com Tel. 02.335.5755